

해외동포선수단, 남도의 풍광·맛깔난 음식에 '엄지척'

18개국 1470명 경기 없는 날엔 관광...전남도, 수송차 등 전방위 지원 홍보·판매관, 체험·시식·할인전 인기...누리소통방, 경품행사도 다채

전국체전에 참가중인 전국의 선수단과 해외 동포단이 남도의 맛과 맛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또한 전남도는 체전을 계기로 우수 농수특산물의 홍보와 농업·농촌정책을 적극 알렸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한 해외동포선수단은 남도의 매력적인 풍경과 음식 맛에 흠뻑 빠져 전남 구석구석을 돌며 남도를 즐기고 있다.

이번 체전에 참가한 해외동포선수단은 18개 국가 1470명 규모다.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골프, 스쿼시, 태권도, 검도 등 8개 종목에 참가한 이들은 1970년대 고국을 떠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다양한 세대와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대부분 전남을 처음 방문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가별 전담 공무원 108명을 투입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체전이 되도록 수송차량 1762대를 동원하는 등 해외동포선수단 편의 제공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남도의 맛과 맛을 느끼고 돌아갈수록 경기 일정이 없거나 조기 종료된 선수들을 대상으로 나주, 무안, 화순, 함평, 강진, 완도, 영암 지역 관광투어 차량과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해주고 있다.

파죽지사 출신이 많은 재독일선수단은 강진-완도 관광코스를 둘러봤다. 이들은 남해안의 유려한 풍경과 맛깔난 음식을 극찬했다. 나주배 시식 코너를 제공받은 재미국선수단은 아삭하고 달콤한 고 품격 배 맛에 엄지를 치켜세웠다. 해외동포선수단 모두 전남도내 식당은 가는 곳마다 대한민국 최고의 맛이라는 칭찬 일색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모처럼 전남을 찾은 해외동포선수단에게 남도의 맛과 맛을 통해 고국의 향수를

를 흠뻑 느끼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대회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전남도와 해외동포가 함께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이 고향인 장광흥 재독일체육회장은 파독 광부 출신으로 지금은 은퇴해 독일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전국체전 개최지역 선수에게 매년 깻잎장학금 1000유로를 지원하는 등 고국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목포 종합경기장에서 참가 선수와 관람객을 대상으로 참여 이벤트와 볼거리를 통해 전남 농수특산물의 우수성과 남도장터 입장상품 등을 알리고, 농업·농촌정책을 소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홍보관에서는 '남도남도밥상, 남도장터'라는 주제로 운영, 하루 평균 방문객이 1000명을 넘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남도장터 누리집 주소 알기' 이벤트로 남도장터에 입점한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조식품 등 다양한 농산물 제조식품을 경품으로 제공해 발길을 붙잡았다. 또 '2023년 10대 브랜드 쌀',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수상 전통주', '전라남도 특화빵' 시식 이벤트도 관심을 모았다. 전국 광역시도 홍보관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농특산물 제조 가공식품을 담은 남도장터 상품 꾸러미 박스를 전달하며 남도장터 회원 모집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도 펼쳤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관에서 떡메치기, 대나무 깨방정 인형 만들기, 울무 비즈 팔찌 만들기 등 휴양마을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제104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18개 국가 1470명 규모 해외동포선수단이 남도 곳곳을 돌며 풍경과 음식 맛을 즐기고 있다. 이들은 1970년대 고국을 떠난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다양한 세대와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재독일선수단이 18일 완도 장보고기념관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등 부존자원을 활용해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 공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마을이다. 지난 2022년 87만명이 이용했다.

홍보관에선 누리소통방(SNS) 방문 인증 및 톨렛 이벤트 참여를 통해 에코백 등 다양한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전남 수산물 홍보관에서는 천일염, 자숙전복, 영

광굴비, 건다시마 등 전남산 명품 수산물과 가공품 50여 품목을 선보였으며, 전복 시식행사와 수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등을 펼쳤다.

특히 전복·돌돔·뽕바리 등 생산 10여 품종을 직접 눈으로 보고 먹어 주기 체험을 할 수 있는 수족관을 전시해 어린이들을 비롯한 관람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수산물 판매관은 활전복·곱창김·반건조우럭·새우젓 등을 시중 가격보다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또 목포종합경기장이 마련된 각 시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풍부한 미네랄과 깨끗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전남산 천일염 홍보활동도 펼쳤다.

/윤현석 기자 chadod@·특별취재반

국힘 '혁신위'로 인선 비판 돌파...문제는 인물난

주말까지 위원장 등 인선 23일 출범...비주류 '영남당 벗어나야'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가 '2기 체제'를 출범시키고 수습에 나섰지만, 인선 내용을 둘러싼 비판이 당 안팎에서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으면서 고심을 거듭 중이다.

김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혁신위원회를 띄워 세신 작업을 본격화함으로써 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당내 비판을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인물난'이다. 지난 총선 공천과 본선 과정에서 중랑급 인사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특히 수도권에선 가용 자원이 더 희소해졌다는 점이 지도부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도권·중원 출신 인사로 임명직 당직자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공언해놓고도 결국 총선 국면에서 임명직의 꽃인 사무총장에 TK(대구·경북) 출신 의원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게다가 혁신위원장에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에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8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여러 내 인적 풀의 한계를 토론했다.

윤 대변인은 "2기도 출범시켰고 의원총회도 하는 과정을 했는데도 평가가 나쁘다는 것, 그렇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히 체감하고 있다"면서도 "재료가 없는데 상을 엄청 푸짐하게 차리라는 것이다. 우리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송구하다"고 털어놨다.

당내 비주류 인사들은 '김기현 2기' 출범 이후 연일 이런 부분을 파고 들면서 "영남당에서 벗어나야 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18일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의 보수 성향 언론도 최근 보궐선거 패배 이후 '영남 스타일'의

당 운영은 더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했고, 이 전 대표와 가까운 허은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보수 성향 언론도) 모두 '비주류'의 발언을 소개하며 우리 당의 단일한 현실 인식을 질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친 만큼 당 쇄신을 도출할 혁신위의 역할과 상징성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지도부는 이런 비판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혁신위를 최대한 빨리 내실 있게 구성해 출범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가안전보위위 임명장 수여식, 당직자 오찬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당에 들어갔다.

주말까지 위원장 등 인선을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중인 오는 23일 혁신위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경찰 조직, 치안 중심 재편 대응력 높여야"

尹 대통령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홍약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협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정부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홍약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 장구, 저위험 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과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제복 입은 경찰 영웅으로 현양된 고(故) 이강석 경장, 고 이종우 경감, 고 강삼수 경위를 추모한다"며 "국기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달라"며 "경찰관도 국민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인 책무를 잊지 않고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